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8절)

‘추석’은 우리나라 큰 명절입니다. 농사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고 추수하기 전, 조상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차례를 지내며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조상들에게 감사하며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어떤 복을 누리는지 생각해 봅시다.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자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건강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이들은 꼭 자느라 이 사실을 모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삶에서 열심이 일한 결과로 추수하게 되지만, 결국 열매 맺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추수하는 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추수할 열매를 맺게 아신 분, 또한 우리가 오늘까지 지낸 모든 순간마다 즐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 입으로 말해 봅시다. “아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말씀했습니다.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이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어린이들에게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그런 종류의 스트레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삶은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전적으로 부모가 책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낮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달이 뜬 밤의 추운 기온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함께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아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안심하세요.”

2025

추석 가정예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살전 5:13]

신앙고백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찬송가 435장 다 같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 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 령: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 도 말 은 이

성경봉독 시편 121:4~8 말 은 이

[4]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7]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 씬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 말 은 이

찬 송 찬송가 301장 다 같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기도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